기학연동역회2010(1,2호) 1904.10.24 4:41 PM 페이지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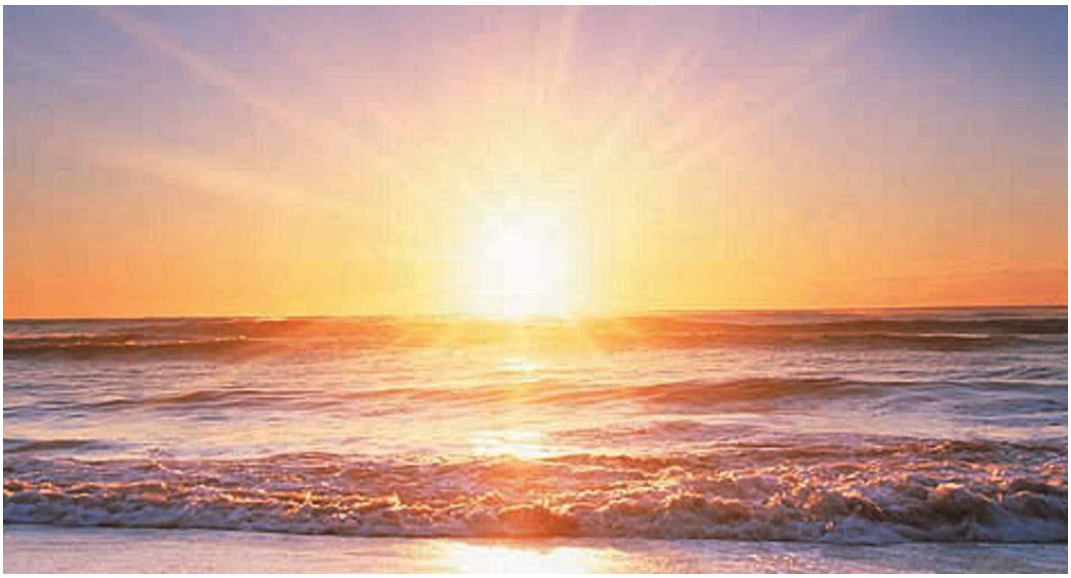
2010년, 우리의 비전과 희망

손봉호 (사단법인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이사장)

새해에 회원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만복이 깃드시기를 바랍니다.

지난해는 우리에게 매우 뜻 깊은 한 해였습니다. 그동안 서로 독립적으로 활동하던 두 기독교 학술단체 〈기독학술교육동역회〉와 〈기독교학문연구소〉가 하나로 통합되어 〈사단법인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로 새로 출범하게 된 것은 큰 경사였습니다. 3,000명의 회원을 가지게 되어 그 규모로서도 한국에서 비교적 큰 학술단체가 되었습니다. 그 동안 교회와 기독교 기관들이 불필요하게 갈라지는 것을 너무 많이 경험한 한국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두 학술단체가 아무 잡음 없이 하나로 묶어진 것은 매우 참신한 모습이며, 그 자체로 한국 교계에 좋은 모범을 보여준 것이라 생각합니다. 역시 학문 활동을 주업으로 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작은 이해관계를 초월할 수 있을 만큼 성숙해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한국의 그리스도인 학자들이 서로가 동역자라는 일체감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기독학술교육동역회〉는 그 동안 사단법인 인가를 받았고 출판부와 세계관대학원을 가지고 있었으며, 〈기독교학문연구회〉는 학술지 〈신앙과 학문〉의 등재를 앞두고 있었는데 이제 통합된 단체는 그것들을 모두 인수받아 부자가 되었습니다. 사무실도 합치게 되어 비용절감도 가능해졌습니다.

통합 후 또 하나의 기쁜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그동안 "등재후보학술지"로 발간되던 〈신앙과 학문〉이 지난 연말에 한국연구재단에 의하여 드디어 "등재학술지"로 인정받은 것입니다. 금년부터는 〈신앙과 학문〉에 게재된 논문은 모든 대학과 연구소에서 100% 그 자격을 인정받게 된 것입니다. 그 동안 많은 그리스도인 학자들이 기독교적 관점에서 논문을 쓰면 등재학술지에 채택되지 못하지나 않을까 해서 마음 놓고 자신의 소신대로 논문을 쓰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걱정을 할 필요가 전혀 없어졌습니다. 기독교적 세계관을 아무리 분명히 해도 학술적 수준만 높으면 얼마든지 발표할 수 있는 통로가 생긴 것입니다. 더 많은 그리스도인 학자들이 마음 놓고 기독교 세계관에 입각해서 더 좋은 논문을 쓸 수 있게 될 것이고, 그것은 자신들의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교회와 교계에도 매우 긍정적인 공헌을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등재지 인정은 한국의 기독교 학문 발전을 위해서는 획기적인 전기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러한 두 가지 경사는 기독교 신앙에 입각하여 학문 활동을 하는 한국의 학자들에게 좋은 바탕을 마련해 주었으며, 좀 더 큰 용기와 희망을 가지고 새해를 맞이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는 그것을 단순히 누리기만 하라고 주시지는 않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것들을 이용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더 드러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더 윤택하게 하라고 주신 자원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한국의 그리스도인 학자들에게 더욱 멋지고 아름다운 열매를 더 많이 생산해 내도록 투자해 주신 것입니다.

모든 다른 달란트와 마찬가지로 학문하는 능력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학문 활동도 하나의 소명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늘날 과거보다 매우 중요한 소명이 되고 있습니다. 현대 사회가 정보사회가 되고 있고 정보가 가장 중요한 힘의 원천으로 부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능한 한 많은 정보, 좋은 정보, 그리고 새로운 정보를 가진 사회가 강한 사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는 물론 사람들의 삶이 오늘날 과거보다 훨씬 더 인공적이 되고 있기 때문이고, 현대의 과학적 학문의 성격이 과거의 학문과 달라졌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제는 주어진 자연 그대로를 이용하는 경우는 점점 줄어들고 모든 것을 인간의 손을 거쳐서 조작하고 재편성하는 문화가 지배합니다. 여기에 가장 강력한 도구로 사용되는 것이 과학적 지식과 기술입니다. 과거에는 지식 자체를 위한 지식이 많이 추구되었지만 오늘의 지식은 대부분 실용을 목적으로 연구되고 보급되고 있습니다. 과거 어느 때보다도 오늘날, 베이컨 (Francis Bacon)이 말한 대로 "아는 것이 힘"이 되고 있는 시대입니다.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모든 학문이 직접 혹은 간접으로 힘의 생산에 공헌할 개연성이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식이 생산해 낸 그 힘이 항상 올바로 사용되지도 않고 올바로 사용되리란 보장도 없습니다. 오히려 "모든 힘은 부패하고 절대적인 힘은 절대적으로 부패한다"는 액튼(J. D. Acton)의 경구는 학문이 생산하는 힘에 특별히 더 적용될 수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 그리스도인 학자들의 고민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활동이 직접 혹은 간접으로 생산한 힘이 우리 자신과 이웃에게 해를 끼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좋은 논문을 쓰고 창조적인 생각을 개발하여 우수한 업적을 냄으로 우리 자신이 만족해 하고 동료들과 사회

의 인정과 칭찬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수한 사람에게 큰 고통을 가하는 힘을 생산하는데 공헌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늘날에는 어떤 학문도, 심지어 지극히 형식적인 수학조차도, 절대적으로 가치중립이 될 수 없습니다. 수학적 지식 없이 핵폭탄을 제조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학문 활동은 정치, 경제, 예술 활동에 비해 훨씬 더 큰 위험과 모험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훨씬 더 큰 책임의식이 동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과거 인문학이 존중되고 철학이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었을 때는 학문의 부정적인 요소가 학문 세계 자체 안에서 드러나고 비판되어 어느 정도 억제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인문학이 거의 질식 상태에 빠지고, 철학은 완전히 무력하게 되었기 때문에 과학적 지식의 부정적인 요소를 지적할 능력을 찾기 힘들게 되고 있습니다. 현대 과학적 학문은 고삐 풀린 말처럼 엄청난 힘을 생산하며 질주하고 있고, 그 힘은 인류에게 치명적으로 파괴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가 기독교적 세계관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여야 할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학문의 중요성이 아무리 크고 우리가 그것을 아무리 자랑스럽게 생각하더라도 그리스도인은 결코 학문의 우상을 섬길 수 없으며 학문적 진리를 절대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하고 심오한 진리에 비하면 인간이 발견하고 발명한 것은 지극히 피상적이고 미미하다는 것을 다시 인식하고 겸손해져야 할 것입니다. 단순히 미미할 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심히 어리석게 되어 우리와 이웃에게 이익을 줄줄 알지만 실제로는 엄청나게 큰 해악을 끼칠 수도 있음도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오늘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는 지구 온난화는 인간의 과학과 과학기술이 만들어 낸 독극물입니다. 과연 이 독을 과학과 과학기술로 해독할 수 있을지는 큰 의문입니다.

그리스도인 학자들은 현대 과학적 학문과 그 놀이의 규칙(rule of game)에 함몰되어 그러한 성격과 위험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머리를 물속에 박고서는 물 전체를 볼 수 없습니다. 지구를 움직이려면 지구 바깥에 아르키메데스 받침대(Archimedian point)가 있어야 하는 것처럼 학문을 알려면 학문 바깥에 전망대가 있어야 합니다. 그 전망대를 예수님, 하나님 말씀에서 찾으려 하는 것이 기독교 학문의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런 전망대에서 보아야 학문 자체의 성격을 알 수 있고 지금의 과학적 지식이 가지고 있는 위험도 올바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위험에 대해서 경고하고 시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새해에 우리 회원들은 올바른 토대 위에 서 있다는 확신과 함께 철저한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활동하기를 기대합니다. 좋은 열매를 많이 맺어 주님께 바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